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우리는 연약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힘주시면 누구라도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
면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말씀의 풍성함 안에 거하며, 오직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28장 다 같 이

1.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 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3. 내 영혼에 봄날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덕 담 가족중어른

주기도문 다 같 이

설 명 절 가 정 예 배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이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부름 **다 같이**

민족 명절인 설을 맞이해 오늘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같이 설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1:7)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559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골 3: 15~17절** **다 같이**

- 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 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 씬 **감사하는 성도의 삶** **인 도 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향
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
에도 우리는 마음만큼 그렇게 생활하지 못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
어 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성도의 삶을 주장하면, 가득했던 근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
치면 감사할 이유들이 가득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때
만 흔들림 없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풍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계속 누리려면 무엇보다 말씀이 풍성해져야 합
니다.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채
워짐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채워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스럽게 느끼
고, 삶에 부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시와 찬송과 신
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
한다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풍요 속에 거해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
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에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소불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
면 나에게 재능과 능력과 지혜가 없을지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
험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